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여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Behavioral Inhibition as a Function of Child's Early Emotionality,
Parenting, and Mother-Child Attachment

박성은*
Park, Seong Eun

박성연**
Park, Seong Yeon

ABSTRACT

In this study of 79 3- and 4-year-old children, behavioral inhibition was assessed by their preschool teachers; mother-child attachment was assessed by the researchers in home visits; and mothers reported on their parenting and their child's emotionality at 6-12 months of age. Findings were that insecure attachment was related to high child's distress reactions to limitations (negative emotionality) in early infancy and to strong maternal rejection/hostility. Higher maternal sensitivity to child's inhibition was related to more secure attachment. Girls were more highly inhibited than boys. Smiling and laughter (positive emotionality) in early infancy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s inhibited behavior. Maternal sensitivity to child inhibi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s inhibited behavio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Engfer's (1993) theory of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paths into behavioral inhibition.

Key Words

행동억제, 애착, 성차, 영문: Inhibition, Attachment, Gender Difference

* 여주대학 보육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I. 서론

일상생활에서 낯설고 불확실한 상황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즉, 새로운 상황에 경계하면서 움츠러드는 반응과 또는 대담하게 접근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낯선 사람이나 낯선 집단에 대해서는 수줍어(shy) 하거나 또는 사교적인(sociable)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이러한 양극단적인 아동들의 반응들은 '억제된 행동(inhibited behavior)' 또는 '탈억제된 행동(uninhibited behavior)'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Kagan, Snidman, & Arcus, 1993) 억제된 행동이란 아동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고 위축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심지어는 하고 있던 활동을 멈추는 것을 말하며, 탈억제된 행동(uninhibited behavior)이란 아동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두려움 없이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억제 성향은 서구 문화권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또는 인지적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vans, 1993; Rezendes, Snidman, Kagan, & Gibbons, 1993; Rubin & Lollis, 1988) 근래에 이르러 서구문화권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행동억제 성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행동억제 성향의 일차적 원인이 개인이 타고난 생리학적 측면에 있다고 보아(Calkins, Fox, & Marshall, 1996; Kagan, Reznick, & Snidman, 1987), 행동억제 성향을 생애초기부터 연령이 증가해도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질적 영역의 일부분

으로서 보고 있다(Kerr, Lambert, Stattin, & Klackenberge-Larsson, 1994; Reznick, Kagan, Snidman, Gersten, Baak & Rosenberg, 1986; Rothbart, 1986).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낮은 아동의 경우에만 연령 증가에 따른 행동억제 성향의 안정성이 나타나며, 행동억제 성향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정도에 속하는 일반적인 아동들에게는 행동억제 성향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여 이로 인해 행동억제 성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Belsky, Fish, & Isabells, 1991; Calkins, 1994; Engfer, 1993;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이러한 행동억제 성향의 비연속성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이 영아의 정서(emotionality)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보고에 힘입어(Calkins, 1994; Cassidy, 1994; Thompson, 1994),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 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리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조장하고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달라 연구의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민감하고 거부적이지 않고 적절히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박성연, 1998; Belsky et al., 1991; Engfer, 1993; Rubin, Stewart, & Chen, 1995),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고 적대적이며 많은 통제를 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는 감소한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Park et al., 1997). 예를 들어 신생아기부터 6세에 걸친 종단 연구를 실시한 Engfer(1993)의 연구에서는 33개월에서 6세까지 일관성 있게

수줍음과 위축행동을 보였던 여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나라 연구에서 자녀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과도하지 않고 얼마나 적절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 결과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수록 아동의 행동억제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이미정, 1998).

이에 반해 Arcus 등(1992)이 영아의 반응성과 행동억제의 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첫 1년동안 종단 연구로 살펴본 결과, 자녀의 울음에 대해 매우 반응적이었던 어머니들의 영아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증가한 반면에 자녀의 짜증이나 울음에 대해 덜 반응적이었던 어머니들의 영아의 행동억제 성향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동의 행동억제를 줄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간의 차이는 민감성이나 통계의 정의에 따른 차이 또는 측정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별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같은 양육을 받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수도 있다(박성연, 1998). 또한 이러한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불일치한 보고는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자녀간 형성된 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는 직접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Rubin 등(1995)과 박성연(1998)의 연구에서도 시사된바 있듯이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어머니와 자녀간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애착감정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을 높이게 되어 행동억제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지증거는 모자녀간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연구들

(Calkins & Fox, 1992; Fox & Calkins, 1993;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3)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Stevenson-Hinde와 Shouldice (1993)의 연구에 의하면 2세반에 안정 애착아(B type)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으나, 저항적 불안정 애착아(Resistent attachment)(C type)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반응을 많이 나타낸다. 또한 초기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 그리고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본 Calkins와 Fox(1992)의 연구에서도 14개월 때 회피적 불안정 애착아(Avoident insecure attachment) (A type)로 분류된 영아가 24개월에 행동억제를 가장 적게 보이고, 안정애착아(Secure attachment)는 중간정도(mild)의 행동억제 성향을 보이며, 저항적 불안정 애착아(C)가 가장 많은 행동억제를 보였다는 보고를 했다.

한편, Calkins와 Fox는 5개월때 영아의 기질을 좌절(frustration)에 대한 반응성과 낯선(strange) 것에 대한 반응성으로 나누어서 애착유형과 행동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좌절에 대한 반응성만이 14개월에 측정된 애착유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24개월 때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lkins & Fox, 1992). 즉, 저항 애착아들 중 엄마가 팔을 못 움직이게 했을 때 울지 않았던 아동들은 울었던 저항 애착아들이나 회피적 애착아들 보다 더 많은 행동억제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좌절에 대한 반응성과 낯선 것에 대한 반응성이 각기 다르게 애착유형과 행동억제간의 관계에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한다(Fox & Calkins, 1993). 즉, 낯선 자극에 대해 울었던 저항적 불안정 애착아(C)들은 24개월에 가장 많은 행동억제를 보인 반면, 팔을 못 움직이게 잡았을 때 울었던 회피적 불안정 애착아(A)

들은 24개월에 가장 탈억제된(uninhibited)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애착과 행동억제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비밀관적이기는 하지만 모자녀 애착뿐 아니라 기질이 함께 행동억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억제정도에 성차가 있으며(Chen, Rubin, & Li, 1995) 성에 따라 행동억제의 발달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한다(Engfer, 1993 ; Stevenson-Hinde & Hinde, 1986; Radke-Yarrow, Richters, & Wilson, 1988). 그러나 실제로 아동의 행동억제의 성차에 대한 보고를 하는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별로 많지 않으며, 행동억제에서 성차가 없었다는 보고를 하는 연구들도 있다.

즉, 영아기와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성연, 1998 ; Broberg, Lamb, & Hwang, 1990 ; Chen, Hastings, Rubin, Chen, Cen, & Stewart, 1998; Kochaska, 1991)에서는 행동억제 정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아동중기, 아동 후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Chen 등(Chen, Rubin, & Li, 1995)의 연구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 보다 행동억제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는 아동후기에 행동억제에 대한 사회화압력이 강해지고 또한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Chen et al., 1998).

한편, 독일 가정을 대상으로 한 Engfer(1993)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요소가 아동의 행동억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즉, Engfer는 독일의 중류층과 하류층 39쌍의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직후에서부터 6세까지 아동의 초기 기질과 후기 수줍음 행동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하였는데, 4개월에 어머니가 지각한 여아의 기질인 적응성과 33개월에 나타난 여아의 수줍음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18개월

에 어머니가 지각한 남아의 까다로움(difficulty)은 33개월에 나타난 남아의 수줍음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수줍음이 높은 여아들에 대해 어머니들은 더 반응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아들이 나타내는 수줍음에 대해서는 의존적이고 미성숙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에 따른 행동억제 발달경로의 차이는 결국 수줍음의 성차에 대한 부모들의 차별적인 태도가 결과적으로 남아의 수줍음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와 여아의 수줍음에 대한 암시적인 보상을 제공해주므로써 여아에게 수줍음 행동이 일시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석된다(Engfer, 1993). 한편 33개월때와는 달리 6살때 남아·여아 모두 짜증스러워하던 아동이 보다 수줍음 행동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과 수줍음의 정적 관계는 여아에게 있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발달적 과정에서 남이는 여아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줍음의 성향을 보이게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수줍음의 발달경로의 변화는 여아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adke-Yarrow 등(1988)과 Stevenson-Hinde & Hinde(1986)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한 애착과 행동억제간에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기질과 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이 모든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애착과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는 점과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관계에서 그 발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애착이 아

동의 행동억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 애착과 행동억제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애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은 아동의 행동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아동들과 취업하지 않은 그들의 어머니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교사를 통해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을 평가하였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애착 Q-set의 36개월용 국내준거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어머니들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 43명(54.4%), 여아 36명(45.6%)으로 평균연령은 48개월이었으며, 대부분이 첫째(39.2%)와 둘째(58.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각각 33.5세와 36.6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어머니 50.6%, 아버지 73.4%).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200만원(35.5%)과 200-300만원(32.9%)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00-500만원이 16.5%, 500만원이상도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5분위 했을 때 중상층에 해당하는 4분위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244만 2천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한국통계월보, 1998), 본 연구 대상의

사회계층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머니용과 교사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아동과 어머니간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그 각각의 측정도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행동억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성연(1998)이 선행 연구(Caplan & Rubin, 1998)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교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낯선 어른, 낯선 또래아동, 낯선 장소, 낯선 물건에 대한 행동억제나 수줍음 및 위축된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과 일반적인 수줍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행동억제 평정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

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근거한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2) 아동의 초기 정서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기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81)의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IBQ)” 중 부정적인 정서성과 긍정적인 정서성에 관련된 27개 문항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내용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좌절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좌절에 대한 고통)과 관련된 문항들로는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소(예: 식당 또는 자동차 안에서 아기용 의자)에 앉혀 놓으면 칭얼대고 몸부림을 쳤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짜증을 냈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정서성(미소와 웃음)에 관련된 문항들로는 ‘기저귀를 갈 때와 옷갈아 입을 때 대체로 웅얼이를 하거나 기분 좋아했다’, ‘낮선 사람이 다가와 미소지으면 함께 웃거나 미소지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이 생후 6~12개월에 보인 초기 정서성에 대해 어머니가 과거회상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영아기 초기 정서성 문항별 반응 양식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랬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초기 정서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기 초기 정서성의 하위 영역인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과 긍정적 정서성(positive emotionality)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6과 .71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정(1998)의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9문항), 과잉보호(10문항), 지시/통제(6문항), 적대/거부(7문항)와 IPBI: Mother form의 반응성(5문항)과 애정성(8문항)등에 관련된 45개 문항들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예비분석을 거쳐 각 양육행동 하위영역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최종적인 자료분석에서는 지시/통제(5문항), 적대/거부(6문항), 반응성(4문항), 애정성(7문항)과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9문항), 과잉보호(10문항)등의 총 4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여기서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동이 보이는 행동억제 자체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지각, 해석, 즉각적인 반응, 적절한 반응의 정도가 포함되며, 반응성과 관련된 문항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라도 자녀가 암시하거나 표현한 전반적인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여부가 포함된다.

양육행동 문항별 반응 양식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한 것이 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영역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은 .72, 과잉보호는 .72, 지시/통제는 .71, 거부/적대는 .70, 반응성은 .71, 그리고 애정성은 .69로 나타났다.

4) 모자녀간 애착 측정도구

AQS(Attachment Q-Set)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정이나 그 밖의 일상적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을 서술하는 문항이 담긴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탐색 균형, 양육자가 달래주는 것에

대한 아동의 반응,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지각, 의존성, 대물조작(object manipulation), 인내력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착 Q-sort 실시 방법은 어머니가 영아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이 적힌 90개의 카드를 읽고 자신의 영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의 최종적으로 모두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즉, 90장의 카드 중 영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에 놓여, 각 점수에 10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9개의 묶음으로 분류해서 얻어진 90장의 카드에 부여된 각 아동들의 점수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안정성 준거점수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구해진 상관계수가 각 아동들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되며, 상관점수가 높을수록 안정 애착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AQS의 안정성 준거점수로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에 의해 산출된 36개월용 국내준거점수를 사용하였다. Waters와 Deane(1985)이 조사한 이 도구의 신뢰도를 보면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일치도는 .76이었으며, Waters(1987)의 미국 준거점수와 국내 준거점수간 상관은 .90($p < .001$)이었다(나유미, 1997).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들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1999년 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 특정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48±8개월인 아동을 가진 어머니 15명과 그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기간동안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문항 중 특별히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그대로 본 조사에서도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1999년 2월 7일에서 3월 4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3-4세 아동의 어머니, 전업주부 79명과 그들의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4곳의 공공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아동들의 담임교사들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협조를 바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 참여 여부와 방문일시를 정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에게 미리 애착 Q-set 문항을 보낸 후 AQS의 내용과 관련해 약 1주일동안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부탁드린 뒤 약 1주일 후 집으로 방문하여 다시 애착 Q-sort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연구자가 참관하는 상황에서 분류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의 AQS 분류작업이 끝나면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포함된 어머니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는 교사용 설문지는 담임교사들에게 작성해 주도록 부탁한 후 2-3주 뒤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SPSS PC용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 t-검증,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전체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모자녀간 애착 안정성 점수는 부정적 정서성, 과잉보호적 양육행동, 적대/거부적 양육행동 및 지시/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r = -.45, p < .001$; $r = -.24, p < .05$; $r = -.31, p < .01$; $r = -.19, p < .10$). 그러나 아동의 성은 애착점수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는 아동의 초기 정서성 중 긍정적 정서성(미소와 웃음)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r = -.26, p < .05$), 아동의 성은 아동의 행동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r = .24, p < .05$).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동의 행동억제와 애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의 초기 정서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 애착간의 관계

상관관계를 토대로, 애착에 대해 초기 정서성 및 양육행동의 모든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중 부정적 정서성(좌절에 대한 고통)과 적대/거부적 양육행동등의 두개의 변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성(좌절에 대한 고통)이 모자녀 애착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R^2 = .20, \beta = -.40$), 다음으로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모자녀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5, \beta = -.22$). 이 두 변인들의 모자녀 애착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5%였다. 즉, 생애 초기에 주어진

좌절적 상황에 대해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기질을 가졌거나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모자녀간에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표 3> 참조) 긍정적 정서성, 아동의 성,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이 행동억제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모자녀간 애착은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언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정서성($R^2 = .07, \beta = -.29$)과 아동의 성($R^2 = .06, \beta = .21$)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들 중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R^2 = .04, \beta = .20$). 이 세변인의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7%였다. 즉, 생애초기에 더 많이 미소짓고 웃음을 보였던 아동들은 후에 행동억제를 낮게 보이며, 어머니가 아동이 보이는 행동억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수록 더 높은 행동억제의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한편, 회귀분석결과 아동의 성 역시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증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억제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행동억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7, p < .05$).

<표 1> 전체집단에 대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성 및 모자녀간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79)

		1	2	3	4	5	6	7	8	9	10	11
정서성	1. 부정적 정서성	1.00										
	2. 긍정적 정서성	-.32**	1.00									
양육행동	3. 과잉보호	.29**	.02	1.00								
	4. 애정성	-.10	.05	.13	1.00							
	5.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	-.05	.15	.03	.44**	1.00						
	6. 반응성	-.01	.19*	.28*	.09	.23*	1.00					
	7. 적대/거부	.24*	-.07	.40***	-.30**	-.27*	.16	1.00				
	8. 지시/통제	.16	.09	.46***	-.18	-.14	.25*	.63***	1.00			
	9. 아동의 성 ^a	.11	.01	.12	.08	.16	.04	-.01	.05	1.00		
	10. 애착	-.45***	.13	-.24*	-.06	.16	-.10	-.31**	-.19*	.08	1.00	
11. 행동억제	.16	-.26*	-.03	.18	.19*	-.16	-.17	-.18	.24*	-.04	1.00	
평균		2.93	4.12	2.95	3.37	3.70	3.70	2.38	3.10	1.46	.43	2.57
표준편차		.64	.49	.55	.58	.56	.84	.54	.59	.50	.20	.63

* p < .10, ** p < .05, *** p < .01, a. 가변수 : 남아 = 0, 여아 = 1

<표 2> 모자녀 애착에 대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79)

예측변수	종속변수	모자녀간 애착			
		R ²	ΔR ²	β	FΔR ²
좌절에 대한 고통(부정적 정서성)		.20	.20	-.40***	19.35***
적대/거부적 양육행동		.25	.05	-.22*	4.42*

* p < .05, *** p < .001

<표 3>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애착 및 아동의 성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79)

예측변인	종속변인	아동의 행동억제			
		R ²	ΔR ²	β	FΔR ²
미소와 웃음(긍정적 정서성)		.07	.07	-.29**	5.57*
아동의 성 ^a		.13	.06	.21*	5.17*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		.17	.04	.20*	3.58*

* p < .10, ** p < .05, *** p < .01, a. 가변수 : 남아 = 0, 여아 = 1

한편 행동억제의 발달적인 경로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Engfer(199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분리하여 이러한 각 집단에 대해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애착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남아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애착과 아동의 후기행동억제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표 1> 참조) 아동의 행동억제는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 애착중 어떤 변수와도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모자녀 애착 안정성 점수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과잉보호 및 어머니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r=-.45$,

$p<.01$; $r=-.29$, $p<.10$; $r=-.52$, $p<.01$), 어머니의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31$, $p<.05$).

한편, 여아집단의 경우는(<표 4> 참조) 어머니의 과잉보호적 양육행동, 거부/적대적 양육행동 및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은 행동억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r=-.33$, $p<.10$; $r=-.46$, $p<.01$; $r=-.57$, $p<.001$),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행동억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r=.38$, $p<.05$).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은 여아의 경우에만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beta =-.57$)만이 여아들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행동억제에 대한 설명력은 33%였다. 즉, 어머니가 지시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여아들은 행동억제를 적게 보이게 된다.

<표 4>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각각에 대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여아의 행동 억제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표준편차)
정서성	1. 부정적 정서성		-.48**	.17	-.20	-.11	-.03	.23	.05	-.45**	.24	2.87(.62)
	2. 긍정적 정서성	-.14		-.07	.21	.23	.11	-.19	-.03	.22	-.24	4.12(.52)
양육행동	3. 과잉보호	.44**	.17		.27 [†]	.17	.26 [†]	.37*	.43**	.29 [†]	.10	2.89(.59)
	4. 애정성	.02	-.21	-.12		.54***	.18	-.15	-.07	.01	.02	3.33(.62)
	5.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	-.03	.03	-.24	.27		.17	-.21	-.01	.31*	.11	3.62(.58)
	6. 반응성	.01	.31 [†]	.32 [†]	-.05	.30 [†]		.11	.24	-.09	-.17	3.66(.87)
	7. 부/적대	.27	.14	.45**	-.57**	.38*	.24		.59***	-.52***	.01	2.39(.60)
	8. 지시/통제	.01	.26	.49**	-.32 [†]	.32 [†]	.26	.69***		-.23	.12	3.07(.57)
	9. 애착	-.47**	.02	-.21	-.16	-.05	-.12	-.01	-.16		-.05	.41(.20)
	10. 행동억제	.02	-.32 [†]	-.33 [†]	.38*	.24	-.19	-.46**	-.57***	-.08		2.43(.64)
평균		3.01	4.13	3.02	3.41	3.79	3.74	2.38	3.13	.44	2.73	
표준편차		.66	.44	.49	.54	.51	.82	.48	.62	.20	.59	

[†] $p<.10$, * $p<.05$, ** $p<.01$, *** $p<.001$

주) 대각선 위는 남아(N = 43), 대각선 아래는 여아(N = 36)임

<표 5> 여아의 행동억제에 대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애착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36)

예측 변인	종속변인	행동억제		
		R ²	β	F
지시/통제적 양육행동		.33	-.57***	16.60***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4세 남·여 아동의 어머니 79명과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 애착 및 아동의 성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초기 정서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 애착간의 관계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모자녀 애착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초기 정서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모자녀 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생애 초기에 주어진 좌절적인 상황에 대해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기질을 가졌던 아동들은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 때 좌절에 대한 고통반응과 영아기 애착유형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Waters, Vaughn & Egeland, 1980; Calkins & Fox, 1992)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5개월 때 다시 측정된 좌절에 대한 고통반응과 영아

기 애착유형간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Calkins와 Fox(199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생애 초기의 좌절에 대한 반응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일반적인 성향을 알려주나 반드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 애착은 관계가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일수록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정된 애착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일관된 반응을 하며 민감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들은 간섭이나 과잉자극을 보이고, 무관심하고 비일관된 상호작용을 한다는 대부분의 양육행동과 애착연구들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박용임, 1995; 손혜련, 1996; 이주혜, 1980; 홍계옥, 1994a, 1994b; Issabella & Belsky, 1991; Miyake, Chen & Campos, 1985; Smith & Pederson, 1988)을 지지한다.

셋째, 아동의 초기 정서성 중 부정적인 정서성의 모자녀간 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20%인데 비해 양육행동 중 적대/거부의 모자녀간 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5%로 나타나 아동의 초기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모자녀간 애착을 예측해 주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애착 발달의 주요 요소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보다 아동 자신의 기질이 어떠한가가 애착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는 Kagan(1982)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과잉보호나 적대/거부적 양육행동과 관련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상호작용적 관점에도 관련 지을 수 있다(Crockenberg, 1981; Pederson, Moran, Sitko, Campbell, Chesquire, & Action, 1990).

결국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나 기대의 관계에서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의 개념과 관련하여 영아의 특성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Thomass, Chess, 그리고 Birch(1968) 등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의 성,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후기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행동억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아기와 학년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roberg, Lamb, & Hwang, 1990; Chen, Hastings, Rubin, Chen, Cen, & Stewart, 1998; Kochanska, 1991)에서 성차가 없었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화의 역할이 나이 많은 아동에게 작용한다고 볼 때 (Chen, Rubin, & Li, 1995)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동억제의 성차는 우리 나라의 유교적 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녀차별의식이 강했고 지금도 사회전반에 걸쳐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성역할 행동을 기대하기에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나 선생님은 문화적인 기대에 적절한 행동을 자녀에게 격려하고(Hoffman, 1988)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문화적 가치에서 지지되는 성역할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즉, 여아들은 여성다움이라는 문화적 가치에서 지지되는 행동억제 성향을 더 나타내게 되는 반면, 남아들은 남성다움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의해 행동억제 성향이 더욱 억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문화가 행동억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북미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중국에서 행동억제에 대해 더 많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Chen 등(1998)의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도 보고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내에서의 행동억제 성차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검증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아동의 후기 행동억제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아동의 초기 긍정적인 정서성이 후기의 행동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초기에 더 많이 미소짓고 웃음을 보였던 아동들은 후에 행동억제를 적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동억제가 부정적인 정서정보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성과 관련된다는 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5개월 때 IRQ를 이용해 어머니가 보고한 영아기 기질의 하위영역중 활동성 수준과 미소와 웃음이 24개월의 영아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Calkins와 Fox(1992)의 연구에서 지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집단과 남아집단에서 초기의 긍정적인 정서성이 3세때의 행동억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박성연(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성과 후기 행동억제를 지지하는 연

구들이 소수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행동억제는 부정적인 정서성과 관련된다는 연구들(Engfer, 1993; Fox, Bell, & Jones, 1994; Kagan, 1989; Rothbart, 1988)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정서성이 후기 행동억제와 관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Belsky 등(Belsky, Hsieh, & Crnic, 1996)의 주장처럼 초기기질과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검증할 때에는 정서성을 긍정적인 정서성과 부정적인 정서성의 두차원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고려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아동이 보이는 행동억제에 민감할수록 아동은 더 많은 행동억제의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고 요구적이며, 비반응적일 경우 행동억제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Park 등(1997)이 제시하였듯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태도가 아동들에게 자신의 행동억제를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지속적인 행동억제 성향을 나타내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통계적 유의도 $p=.10$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될 때까지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이미정, 1998)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을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반응성)과 행동억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행동억제에 대한 민감성만이 아동의 행동억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행동억제 연구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민감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박성연, 1998; 이미정, 1998; Arcus et al., 1992; Engfer, 1993)에서 행동억제와 관련된다고 보고된 다른 변인들 즉, 과잉보호, 거부/적대, 지시/통제 등은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법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실제 양육행동을 정확하게 보고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고했을 수도 있기에 좀 더 객관적인 실제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 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예상과는 달리 모자녀간 애착은 아동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행동억제가 실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관련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애착과 행동억제의 관련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애착이 행동억제와 실제로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은 애착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김영명, 1996; 박용임, 1998). 즉, 만 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용임(1998)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중 낮선상황에 대처하고, 낮선 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행동으로 정의된 안정성은 애착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4개월과 40개월 유아 43명을 대상으로 한 김영명(1996)의 연구에서도 행동억제와 유사한 행동인 불안-두려움 행동과 애착간에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애착과 행동억제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보고들은 Stevenson-Hinde와 Shouldice(1993)가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선 것을 다루는데 유능한 전략을 가지게 되어 실제 애착과 행동억제간의 관계가 감소한다고 해석하였듯이 아동의 연령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Stevenson-Hinde 등(1993)의 연구에 의하면 2세반에는 아동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반응과 모자녀 애착 유형간 관련이 있었으나, 아동이 4세반이 되었을 때에는 애착집단간 경계반응의 차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아동들의 평균 연령도 49개월임을 고려할 때 아동들이 이미 낯선 것을 다루는 유능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자녀간 애착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불안정 애착아들이 안정애착아들보다 더 많은 행동억제를 보이며 애착 유형중 저항적 애착아들이 가장 행동억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Calkins & Fox, 1992; Fox & Calkins, 1993)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과 행동억제간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낯선 실험실 상황을 통해 애착유형을 분류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애착 Q-set를 사용했기 때문에 애착의 질을 측정할 수는 있었으나,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못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애착 Q-set의 측정 방법과 관련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36개월용 애착 안정성 준거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평균 연령이 48개월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애착 안정성 점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애착과 행동억제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 근거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체 표본의 경우 아동의 성,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초기 정서성 중 미소와 웃음(긍정적 정서성)의 행동억제에 대한 설명력은 7%로 가장 높

았으며, 아동의 성이 6%,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행동억제의 민감성이 4% 순으로 나타나, 기질이나 양육행동 이외에도 아동의 성이 행동억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 변인의 행동억제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7%로 별로 높지 않았기에 이들 요인들 외에 다른 요인들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머니의 내향성이 행동억제와 관련된다는 이미정(1998)의 연구와 사회적 능력과 언어적 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아동기를 거치는 동안 행동억제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는 Engfer(1993)와 Asendorf와 Aken(1994)의 연구에서 그리고 21개월에서 35개월 사이에 아동 양육기관을 옮겼던 아동들이 그렇지 않았던 아동들보다 행동억제의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Arcus와 McCartney(1989)의 연구들을 통해 행동억제 선행요인들을 연구할 때 더 많은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예상한 대로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집단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지시적이고 통제적으로 여아들을 대할수록 여아들의 행동억제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시/통제가 많을수록 행동억제를 적게 보인다는 연구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태도가 아동의 행동억제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전체집단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억제에 대해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이것이 아동에게 행동을 변

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해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의 감소에 영향을 주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은 양육행동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나,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억제 성향으로 인해 이런 아동들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더 지시적이고 통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는 앞으로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아집단의 경우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3세 백인 남아의 행동억제 성향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한 Park 등(1998)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영향력만을 고려한데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3세 남·여아를 대상으로 한 박성연(1998)의 연구에서는 남아에게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물론 Park 등(1998)과 박성연(1998)의 연구가 모두 자연적 관찰법과 실험실 관찰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데 관찰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양육행동의 측정방법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좀 더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남아와 여아의 차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앞에서 고찰한 행동억제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와 이러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 행동억제와 관련변인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어머니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도 있다. 즉,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의 행동억제에 대한 더 많은 수용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남아들이 보이는 행동억제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와 여아들이 보이는 행동억제에 대한 암시적인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아에게 행동억제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아의 수줍음은 비교적 부모의 특성과 독립적이었던 반면, 여아의 수줍음은 어머니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Engfer(1993)의 연구에서도 시사된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이러한 행동억제 선행변인들과 행동억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의 행동억제는 모자녀 애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아동의 초기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4세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아의 경우에는 행동억제 성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소재한 유치원을 통해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수가 적었고, 더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아동의 초기 정서성은 어머니를 통한 회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기에 어머니의 기억손실로 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에 실제적인 양육행동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 관계가 축소되었을 수도 있다는 측정도구상의 제한점을 갖는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국내 연구가 몇몇 연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행동억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모자녀간 애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행동억제와 모자녀 애착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성에 따라

행동억제와 관련된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을 좌절에 대한 것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의 차별적인 특성을 탐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변인들과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행동억제와 관련된 선행변인들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명(1996).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용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한국판 애착 Q-set』. 미간행 검사도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 이주혜(1980). 유아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1998). 『한국통계월보(4/4 분기)』. 서울: 통계청.
- 홍계옥(1994a).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지적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4), 181-191.
- 홍계옥(1994b).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rcus, D., & McCartney, K. (1989). When baby makes four: Family influences in the st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J. S. Reznick(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 (pp. 197-217).
-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 (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Paper presented in a symposium o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 Asendorpf, J. B., & Aken, M. A. G. (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ion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86-1798.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27-431.
- Belsky, J., Hsieh, K. H., & Crnic, K. (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89-298.
- Broberg, A., Lamb, M. E., & Hwang, P. (1990).

- Inhibition: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sixteen- to forty-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153-1163.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Biological and behavioral foundations of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40(59), 53-72.
- Calkins, S. D., Fox, N. A. (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twenty-four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alkins, S. D., Fox, N. A., & Marshall, T. R. (1996).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antecedence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523-540.
- Caplan, R. J., & Rubin, K. H. (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 72-91.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 (Ed.), Biological and behavioral foundations of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40(59), 228-249.
- Chen, X., Hastings, P. D., Rubin, K. H., Chen, H., Cen, G., & Stewart, S. L.(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77-686.
- Chen, X., Rubin, K. H., & Li Z, Y. (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31-539.
- Cro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mother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6-868.
-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49-79). Hillsdale, NJ: Erlbaum.
- Evans, M. A. (1993).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 dimension of shyness.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89-212). Hillsdale, NJ : Erlbaum.
- Fox, N. A., Bell, M. A., Jones, N. A.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to stress and cerebral asymmetry.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8, 161-184.
- Fox, N. A., & Calkins, S. D. (1993).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 attachment, and regulation.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81-100).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L. 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In W. Damon, R. A. Levine, P. M. Miller, & M. M. West(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Vol, pp.99-122), San Francisco: Jossey-Bass.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An evaluative summary*. New York: W. T. Grant Foundation.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 (1988). Childhood derivative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agan, J., Reznick,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agan, J., Snidman, N., & Arcus, D. (1993). On the temperamental categorie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9-28). Hillsdale, NJ : Erlbaum.
- Kerr, M., Lambert, W. W., Stattin, H., & Klackenberge-Larsson, I. (1994). Stability inhibition in swedish longitudinal sample. *Child Development*, 65, 138-146.
- Kochanska, G. (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Miyake, K., Chen, S., & Campos, J.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76-294.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Chesquire, K., & Action, H. (1990). Mer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Radke-Yarrow, M., Richters, J., & Wilson, W. E. (1988). Child development in a network of relationships. In R. A. Hinde &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pp. 48-67). Oxford: Clarendon Press.
- Rezendes, M., Snidman, N., Kagan, J., & Gibbons, J. (1993). Features of speech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77-187). Hillsdale, NJ : Erlbaum.
- Reznick, J. 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 Rosenberg, A. (1986).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7, 660-680.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1986). Longitudinal observation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56-365.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Rubin, K. H. & Lollis, S. P. (1988). Beyond attachment: Some thoughts about

- socio-emotional continuities.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219-252).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ro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p. 255-284). NJ: Erlbaum.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tevenson-Hinde, J & Hinde, R. A. (1986) Changes in associ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s.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pp. 115-129).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 (1993). Wariness to strangers: A behavior systems perspective revised.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01-116). Hillsdale, N. J.: Erlbaum.
- Thomas, A., Chess, S., & Birch, H. F.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40(59), 25-52.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 Waters, E., Vaughn, B. E., & Egeland, B. R. (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t age one: Antecedents in neonatal behavior in an urb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ample. *Child Development*, 51, 208-216.